

# 각국의 음주문화와 비즈니스

- 기획조사부

술 문화에 익숙해야 비즈니스도 잘한다. 독일 남부의 중소 기계업체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중국과의 하청계약 상담을 하기 위해서다. 하루의 일정이 잘 진행되고 제법 큰 계약도 이뤄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적어도 저녁식사 전까지는 그랬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독일측 사절단장이 중국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자꾸 거절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 바뀌었고 막판에는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분명 독일측의 실수였다. 중국에서는 상담이 잘 이뤄져 계약단계에 도달하면 멋지게 한 잔씩 돌려 서로 축하하는게 관례인데 독일측은 현지 음주문화를 모르고 한사코 잔을 거절한 것이었다. 실제로 가격이나 납기등 일반적인 경쟁력 요소와는 무관하게 현지의 음주문화 미숙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세계 주요국가의 음주문화와 비즈니스에 관해 간략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아시아에선 對酌 필요

아시아에서는 함께 마시면서 손님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한잔 외에는 달리 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적으로 친해지길 원하면 더욱 그렇다. “축하해야 할때 제대로 축하를 못하

는 사람은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성사에 애로가 많지요.”라고 루프트한자 서비스 Woelki사장은 말한다. 세계 각 항공사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이 회사 사장은 업무특성상 각국의 음주문화에 정통하다. Woelki사장에 따르면 경영자들이 음주문화 미숙으로 낭패를 맞는 경우는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 이태리 음주문화

이태리에서 사업파트너와 점심을 먹을때 이쪽 손님이 와인 대신 콜라를 시키면 상대 이태리인은 이해를 못한다. 뿐만아니라 식후 커피 주문시에도 농축 커피인 에스프레소(Espresso)대신 카푸치노(Cappuccino)를 시키면 역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이태리 북부유명 실업인의 한사람인 Raccagni씨는 이에 대해 에티켓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까지 평하고 있다.

- Espresso : 분말에 스틸을 통과시켜 만든 커피
- Cappuccino : 뜨거운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탄 것(종종 시나몬(Cinnamon)을 넣고 커풀크림을 얹어 마심)

## 불란서 음주문화

반면 포도주의 나라 불란서에서는 점심때 술

을 마시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 사업상 점심을 하게되면 술대신 워터를 시킨다. 치즈를 먹을때만 와인을 조금 마시는 정도이다. 코냑의 음주 관행은 더욱 엄격해 반드시 저녁식사 후에만 마신다고 에이프랑스 독일지사장은 말한다.

## 미국의 음주문화

미국에서 술을 주문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기껏해야 와인 한 잔 정도가 좋다. 맥주를 주문하면 걸눈질로 쳐다본다. 비즈니스 런치때는 소다수 종류가 적당하며 미네랄 워터, 아이스茶와 같은 무알콜 음료등이 무난하다.

## 중국, 홍콩에선 酒宴의무

중국, 홍콩에서는 사업과 관련 주연참석이 일종의 의무이다. 건배를 제의 받으면 단번에 잔을 들어 마시고 난뒤 잔을 뒤집어 식탁위에 세워야 한다. 술종류는 맥주, 와인, 소주가 고루고루 나오고 마지막에는 55도 짜리 전통 중국술 마오타이주가 나온다. 체면상 대작을 피해서는 안되고 마지막까지 건디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도저히 못따라 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간에 덜 마시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 일본의 음주문화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식사 초대를 받으면 술 못지 않게 음식문화도 낯설다. 생선회나 생국등 날음식에 익숙치 않으면 힘이 든다. 술은 맥주나 기껏해야 17도짜리 사케(청주)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다. "깜빠이"하고 외치면 잔을 다 비워주는게 통례다. 일본에서 정식 초대시에는 그리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위스키등 고도주는 물을 타서 마시는데 보통 가라오케 같은 데서 밤늦게까지 놀 때 마신다. 매우 감정적

인 일본사람들에게 이러한 어울림은 매우 중요하다.

낮선 서양 파트너와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렇다. 독일 매니저들의 고집스런 사상으로 비즈니스가 깨지는 경우는 일본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 독일의 비즈니스맨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독일가곡 한곡정도 불러줄 준비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방앗간 주인의 편력 취미 (Das Wandern ist des Muellers Lust)" 같은 노래)

## 러시아의 음주문화

러시아에서의 건배 제안은 특이하다. 죽 돌아가며 한마디씩 건배사를 하는데 건배사를 끝낼 때마다 쭉 들이킨다. 최소한 한 번 이상 건배사 준비를 해야한다. 건배사는 주로 참석한 부인의 건강 또는 잘 아는 사람이지만 참석을 하지 못한 사람과의 우정등을 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잔을 들면 "Na sdarowje"하며 누구의 건강, 우정을 위해 하고 덧붙인다. 러시아 사람들은 꾸밈없는 표현, 가슴으로부터 넘치는 표현을 좋아한다. 따라서 포옹을 즐기는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로 보면 된다. 러시아는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므로 돌아가면서 마시는 러시아 술자리에서는 중간에 일어서기가 힘들다. 술병에 술이 있는 한 저녁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식사때에는 보드카, 꼬냑, 와인, 맥주등이 동시에 나오며 식사 끝에는 노래가 이어진다. 손님이 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30년간 러시아 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Bavarian Russland Consulting사의 크라우제 사장은 말한다.

## 중동의 음주문화

중동에서는 이슬람 종교 율법상 음주를 규제

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경우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엄격하게 금주를 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잔치술이 나온다. 사우디에서는 지나치게 눈에 띄면 경찰이 단속을 한다. 두바이는 훗씩 자유로우나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다. 상대방이 자기의 음주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술을 권하지 않는게 좋다. 주인이 하는대로 하는게 최상책이라고 Bonn에 있는 독일, 아랍상공회의소 그라우 소장은 말한다.

## 중남미 음주문화

라틴 아메리카에는 일정한 음주 관련 법칙은 없다. 저녁식사나 칵테일 리셉션에서 술은 보통 나온다. 그러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처럼 의례적인 음주는 관행이 아니다. 남반구로 갈수록 술을

덜 마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나한 술자리가 베네주엘라 기준으로는 간단한 한잔 자리일 뿐이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중남미에서 주스나 물을 시켜도 관계없다. 특히 점심 식사때에는 그렇다. 열대지방에서 자주 있는 일이지만 브라질에서도 독일 여행자들은 곤욕을 치를 때가 많다. 오랜 비행시간과 기후 변화로 인한 적응도 채 되기 전에 저녁에 한 잔으로 아주 취해버리는 수가 있다. 레몬주스처럼 달콤한 브라질의 전통주 Caipirinha주는 레몬, 설탕, 얼음을 섞은 다음 잔 가득히 사탕수수 소주를 부어 만든 것으로 단맛에 홀짝거리다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다. 여행전에 말라리아 약이라도 먹은 비즈니스맨이라면 세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보통이다.

文章做到極處，無有他奇，只是恰好。人品做到極處，無有他異，只是本然。

문장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면 별달리 기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꼭 알맞을 뿐이요, 인품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면 별다른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본연 그대로일 뿐이다.

- 菜根譚중에서 -

唐詩감상/王翰의 詩

涼州詞

맛나는 포도주에  
술잔은 야광배  
그렇잖아도 마시려는데  
말위의 비파 소리 더 재촉한다.

취하여 백사장에 누워 있나니  
그대들 웃지 말라.  
옛부터 전장에 나가  
몇 사람이나 돌아왔던고

葡萄美酒夜光杯  
欲飲琵琶馬上催  
醉臥沙場君莫笑  
古來征戰幾人回